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4. 10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표지사진 · 길상사 꽃무릇

꽃무릇은 외형의 화려함과는 달리
슬픈 사랑과 그리움을 지닌
애절한 꽃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일과 꽃이
평생 단 한번도 만나지 못하고,
서로 그리움을 안고 살아야하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꽃무릇은 9월초부터 피기 시작하여
보름 정도 만개한 후 꽃이 지며
꽃잎이 모두 떨어진 뒤에야
비로소 푸른 잎이 하나 둘 돋습니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4 / 10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가을이 온다
처음 마음으로	08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라.
책 속의 책	14	화엄경 입법계품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16	빠리의 공동묘지, 빠른 라셰즈 - 1
내 마음속 풍경	20	시부모와 갈등 없이 사는 비결
길은 사람 따라 흐른다	23	오솔길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26	아름다운 마무리 - 이재성(가평) 어르신
맑고 향기롭게	28	죽지 못해 한스러웠는데...
2014년 의료비 지원 사례		고마운 나라 - KOREA
샌디에고 암탉	32	세대대양님이시여
참교육 이야기	36	문 · 이과가 통합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불교전설	41	헤울의 징죄불와 (통영 · 벽방산)
사색의 뜰	44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6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발행 / 통권 236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정은,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8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가

글 • 법 정(法 頂)

지난여름은 우리 모두에게 전에 없던 격동과 시련과 기대를 안겨준, 그래서 열기로 가득한 그런 시절이었다. 들녘에 나가 가을바람에 여물어가는 벼이삭을 보고 있으면, 갓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묵묵히 가꾸어온 농부들의 노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한 톨의 이삭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태풍으로 무너진 논둑을 다시 쌓고, 쓰러진 벼포기를 일으켜 세우느라고 햇볕을 들고 밤을 새워가며 일 하던 모습들이 거룩한 성상처럼 떠오른다. 말없이 대지를 경작하는 이런 농부들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요 위대한 창조주이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한때 우리가 지녔던 그

희망과 기대가 자꾸만 희석되려고 한다. 계층간의 주장들이 이제는 이성과 양식의 선을 넘어 격양된 감정과 살벌한 흥분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처럼 멈출 줄도 모르고 어디론지 곤두박질치는 것만 같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묻지 않아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과거의 쓰러린 경험으로 보아 억압과 통제와 비인간적인 횡포가 우리들 목을 죄고, 우리 시대를 다시 명들게 할 것이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외곡의 일부 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오늘 이 땅에서 혁명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혁명은 새로운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되풀이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뒤엎어지는 혁명이 아니라 건전한 개혁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

개혁은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받아내려고 한다면, 궁지에 몰린 나머지 칼자루를 쥔 쪽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 쉽다. 왜냐하면 내놓은 고지에 대해서는 늘 연연하게 마련이니까.

엿그제 만난 몇몇 근로자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온 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가지씩 개선의 싹이 트고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말자. 그리고 노사간에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여유도 가지면서 내 집안일 처럼 차근차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받아내려고 하다가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제발 때려 부수고 불 지르는 일만은 참으라

고 당부했다.

가난한 나라 살림에 천재지변으로 입는 피해도 막중한데, 우리 손으로 때려 부수고 불 질러 득 될 게 뭣인가. 일단 파괴에 손을 대면 재산상의 피해는 놓아두고라도 인간의 심성이 그만큼 찢기고 상한다는 업연業緣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파괴의 손으로 어떻게 내 아내와 자식을 다독거리고 가정에 온기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런 파괴와 방화 앞에 누구나 섬뜩해 하고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동정과 이해를 보내던 이웃들도 하루아침에 차디찬 눈으로 바뀌고 말 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업주는 더 이상 미적미적 미루면서 맨 처음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손익에 대한 내용을 전 종업원들에게 정직하게 공개하여 합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일을 풀어나가는 데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어쨌든, 한국 경제가 그동안 급성

장한 이면에는 정책 당국의 비호 아래 값싼 노동시장 덕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훤히 알고 있는 이 마당에, 뒤늦게라도 응분의 보상을 치르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세상에 거저 되는 일도 없을뿐더러 공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런 기회에 우리 모두가 깨우쳤으면 좋겠다.

6·29 선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겨레의 앞날을 염려한 젊은 대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의 산물이다. 자기희생을 각오한 그 젊음들이 아니었다면, 정치군인들의 독선적인 행진은 결코 그 방향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학생들이 있기에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로운 투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시기를 가려야 한다. 아무 때고 천후식으로 일어서다면 그때는 이미 명분과 의미를 잃게 된다. 집 안에 불이 나면 소방관만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나와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하지만 일단 불이 잡히면 저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본업에 종사하는 것이 또한 건전한 사회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혁명을 원하지 않고 건전한 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의 애국심과 용기와 잠재력은 지난여름, 세계가 다 같이 확인했었다. 6·29 선언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여·야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지켜보면서, 이제는 대학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가는 것이니 결코 오는 것이 아니다. 한번 흘려보내고 나면 다시 되찾을 수 없다. 눈이 맑을 때 실컷 배워두기를, 젊음이 머무는 동안 괴로워하며 탐구하기를 권하고 싶다.

이 나라는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할 나라이지 어떤 계층만의 것이 아니다. 한쪽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지 말라. 모두가 지나가는 한때일 뿐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너무 집착하지 말라. 너무 집착하면 시야가 좁

아진다. 세상은 넓다. 열린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라.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 어떤 일만을 최고 가치로 삼을 경우, 우리는 그 일의 노예가 되어 팔팔해야 할 사람이 시든다.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들녘에 나가 누렇게 물든 이삭들을 보라. 지난여름 갖은 재난 속에서도 알알이 가꾸어온 우리 농부들의 피땀을 보라. 이 땅의 농부들이야말로 노력에 비해 소득이 가장 미약한 억울한 이

웃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이 없다. 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흙을 밟기 때 문이다.

그리고 사계절의 질서 안에서 참고 기다릴 줄을 안다. 흙에는 거짓이 없다. 가꾼 대로 거두게 한다. 오늘의 온갖 갈등은 이 흙의 정신을 본받을 때 그 길이 열릴 것이다.

가을이 온다. 당신은 이 가을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 1987

- 텅 빈 창만 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사회 속 외톨이가 된 노인들이 주변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동안 고독사를 빈곤층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등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고독사라는 것이 경제적 상태를 떠나 혼자 사는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맑고향기롭게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 중에서도 가슴 속으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시듯 합니다.

이에 회원님과 신도님중에서 노환과 병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이 없어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겪고 있는 분께서는 맑고향기롭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전화말벗 봉사자를 연계해드리거나 적절한 도움을 연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함께 할 봉사자의 손길도 기다립니다. ☎ 02.741-4696

부처님은 법구경(法句經)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애욕과 애착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애욕과 애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과 애착을 모두 다 떠나면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으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 그 밑바닥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남녀의 이성과 재물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연의 모임이요, 재물은 주인을 찾아 흘러드는 것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사랑도 흘러지고 재물도 다른 주인을 찾아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든 재물이든 영원한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떠나가는 것들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면 괴로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오히려 재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의 인연이 맺어졌을 때 나를 낫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면 서로를 살리고 더 좋은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생각(正念)을 가져 애착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근심과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재물과 이성과 내가 모두 온전하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 • 덕 운(德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을 해치는 것으로는 여색보다 더한 것이 없고, 도를 그르치는 것으로는 재물이 으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이성에 대한 애욕과 재물에 대한 애착이 도를 망치므로 티끌만 한 애착심도 두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 무심(無心)해져야 하고, 무심해지기 위해서는 안과 밖을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하여 안과 밖을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양심을 지키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고자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한 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안과 밖이 다르지 않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교의 사서 중 하나인 「중용(中庸)에 신독(愼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독(愼獨)은 도(道)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더욱 삼가고 근신하며 조심스럽게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행하는 사람은 안으로 먹은 마음이나 밖으로 행하는 것이 한결 같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인은 ‘무표리(無表裏)’라 하였습니니다. 겉과 속,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진난만한 도인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에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를 보여 줍니다.

어떠한 가식도 없이 무심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도인들의 한마디, 한 동작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 감화를 줍니다. 중

생교화는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 묻지 않은 도인의 행(行)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시인 정명도(程明道)와 동생 정이천(程伊川)이 어느 날 함께 친구들이 베푸는 연회장으로 갔습니다. 술을 몇 잔 들이켜고 기분이 좋아진 정명도는 옆에서 시중드는 기생을 끌어안고 희희낙락 즐거워했습니다.

“너 참 예쁘다! 꽃보다 아름답구나.” 하면서 기생의 뺨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술을 먹여주기도 하면서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동생 정이천은 형님의 태도가 영 못마땅했습니다.

‘학덕 높고 점잖기로 이름난 형님께서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한소리 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 억지로 참다가 심사가 뒤틀려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정이천은 형님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형님, 어제 저녁에는 왜 그런 추태를 부렸습니까? 형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천하의 도학자 정명도선생이 술좌석에서 천한 기생을 희롱하다니……. 어디 있을 법이 아닌 일입니까?”

정명도는 동생이 하는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어제 저녁 내 마음속에는 기생이 따로 없었는데, 오늘 아침 네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기생이 자리 잡고 있느냐?”하고 말했습니다.

정명도 선생은 술이 맛있어서 먹었을 뿐이고 기생이 예쁘게 보였으므로 예뻐한 것뿐입니다. 상대가 기생이므로 희롱한 것도 아니요, 음욕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천진한 마음을 가진 도인은 직용직행(直用直行)합니다.

곧바로 쓰고 곧바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애착도 애욕도 붙지 않습니다.

훗날 정명도는 소강절(邵康節)이라는 유명한 시(時)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道通天地無形外 (도통천지무형외)
思入風塵變態中 (사입풍진변태중)
富貴不淫貧賤樂 (부귀불음빈천락)
男兒到此始豪雄 (남아도차시호웅)

“천지밖의 형상이 없는 곳까지 도를 통하고 풍진 세상 탈바꿈하는 것 속까지 생각이 들어가며

부귀하면서도 음란하지 않고 가난과 천함을 낙으로 삼노라.

이러한 경계에 이른 남이라야 영웅호걸이라 하리.”

도를 닦는 사람들은 먼저 도를 이룬 분들을 거울로 삼아 안과 밖을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겉으로 청정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성욕, 식욕, 재물욕, 명예욕을 탐한다면 도(道)와는 결코 부합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보고, 네가 보고,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해가야 합니다. 애착 없는 진솔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고 선신들의 가호로 도의 경지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善神)이 보호하고, 마음속에 색욕을 품으면 하늘이 용납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수행을 잘하여 선신이 보호하면 아무리 험한 곳에 있어도 어렵지 않게 되고, 하늘이 용납지 않으면 아무리 편한 곳에 있어도 편안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끊임 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한눈을 팔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사대(四大)인 몸뚱이와 재물은 시간이 흘러가면 무너지고 흩어지고 맙니다. 오롯이 정진하여 마음을 순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생은 한 점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서산대사께서 읊었습니다.

生也一片 浮雲起(생아일편 부운기)
死也一片 浮雲滅(사아일편 부운멸)
浮雲自体 本無實(부운자체 본무실)
生死去來 亦如然(생사거래 역여연)

“생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이다.
뜬구름 자체는 본래 실성이 없으니
생사거래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생사란 것도 한조각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과 같다 했는데, 신외지물(身外之物)인 이성과 재물은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추구해도 결국은 공허함만 더할 뿐입니다.

금생에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일들을 줄이고 끊임없이 정진해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지치기를 하면서 주변을 좀 더 단순하고 간소하게 하면서 수행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사바세계

요, 고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우리가 밭 딛고 있는 어느 한 곳이라도 극락이 아닌 곳이 없는 것입니다.

황벽선사가 이르시되
「진로(塵勞)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니
승두(繩頭)를 꼭 잡고 한바탕 지을
지어다.

한차례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겠는가?」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로는 오락약세요, 승두는 화두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 수단 모두가 승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하는 마음공부를 위해 큰 원을 세우고, 오늘 하루 아니 순간순간을 기도하는 이는 기도로, 독경하는 이는 독경으로, 참선하는 이

는 참선으로 굳은 신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행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깨닫지 못할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빨리 한 생각 크게 뒤집어 정각(正覺)을 성취하여 어느 국토에서나 자

유희하게 노닐 수 있는 걸림 없는 무위도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이만 마칩니다.

—불기2558년 8월 초하루
(2014년 8월 25일)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 전국 회원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이나 길상사 중무실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013-787953(맑고 향기롭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각 지역모임에서도 동전 모금통을 배포하고 있으며, 모여진 동전은 지역모임으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지역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이 내게는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다. 이 책에 담긴 법문으로 해서 구도의 의지가 싹트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새삼스레 사는 기쁨을 누린다.

오죽잖은 내 뜰도 흰히 트여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싶어진다.

그 목소리를 통해 근원적인 나 자신과 마주친다.

〈화엄경〉은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장엄한 산맥이다. 어지간한 산자락은 그 안에 모두 감싸인다. 골짜기마다 교향악 같은 메아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진다. 전체 34장으로 이루어진 〈화엄경〉가운데서도 맨 끝에 속한 〈입법계품入法界品〉은 심오한 화엄사상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법문이다.

〈입법계품〉이라는 별칭이 말해 주고 있듯이, 선재동자라고 하는 한 젊

은 구도자가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피나는 구도 행각 끝에 법계(진리의 세계)에 도달한 이야기를 엮은 경전이다. 말하자면 인생 편력을 담고 있는 사연들이다. 그것은 마치 기구한 삶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대하소설을 방불케 한다.

선재동자는 일찍이 구도의 결심은 섰으면서도 어떻게 구도자의 행을 배우고 그 길을 닦아야 할지를 모른다. 어느 날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듣고 환희심과 용기를 낸다. 진리의 세계, 즉 법계를 찾아 아득한 편력의 길에 나선다.

53선지식을 차례로 방문, 무진법문(無盡法門)을 듣고 그때마다 그의 앞에는 만남과 눈뜸과 전생(轉生)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 헤맨 끝에 만

남으로써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몸소 보이고 있다.

몇 해 전 한 주일에 한 번씩 대학생들의 모임을 갖고 이 〈입법계품〉을 함께 읽으면서 해석하고 강론할 기회가 있었다. 장소는 적정치인 사원이 아니고 시끄럽고 어수선한 상가 틈바구니였다.

그럼에도 내게는 그때마다 만나는 기쁨이 있었다. 그날 강론한 구절을 소리 내어 함께 읽는 합송에서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곤 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생명의 줄기에 서로가 굳게 맺어져 있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저마다 따로따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외로운 섬이었다.

그러나 화엄의 거울에 비친 우리들은 같은 뿌리에서 뻗어 나간 가지임을 직관하게 된다. 이웃의 일이 내게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의 일임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나는 이 〈화엄경 입법계품〉을 통

해서 구도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선재의 길이 곧 내가 가야 할 길임도 뒤늦게 알아차렸다. 또한 세상을 보는 눈을 희미하나마 얻게 되었다. 그 전에는 반야사상의 직선적인 논리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화엄을 만나게 되자 공정의 세계로 연대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이따금 〈화엄경〉을 펼칠 때마다 문득 내 귀에 들려오는 우렁찬 합창의 메아리가 있다.

“서로 손을 마주 잡자, 역만의 이웃이여
이 포옹을 온 세상에 퍼뜨리자!”

나는 〈화엄경〉을 읽다가 자주 땀는다. 잠든 내 혼을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이다. 책장을 더 넘기지 않아도 내 안에서 한 글자도 없는 문자 밖의 경전을 능히 읽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속의 목소리가 내 귓속의 귀에 들려오기 때문이다.

- 서있는 사람들 중에서

- 1

글 • 오상일(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

어릴 적, 어찌다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동구 밖 솔숲의 무덤가를 지나야 했다. 나뭇가지는 거무스레한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고 바위는 사나운 동물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솔숲이 가까워 울수룩 공포는 가중되어 내 발자국 소리에 내가 놀랐다. 귀신은 다 허구요 심약한 인간이 지어낸 헛것에 불과하다고 마음 다잡던 꼬마의 논리는 그냥 논리일 뿐이었다. 이름 모를 밤새 소리를 귀신의 울음으로 알고 고무신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내달렸으니 말이다. 어찌나 혼났는지 그 후로 며칠을 앓아누웠다. 많은 공포물의 단골 무대가 되는 공동묘지. 죽음이 얼마나 싫은 것인지 화장장은 지역의 기피시설이 되고, 주민들은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건립반대 데모를 한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초상집 문상을 말리는가 하면, 귀가한 문상객은 문밖에서 온몸에 한 움큼 소금을 뿌린 연후에야 집안으로 들어간다.

이렇듯 산 자는 이승에서조차 죽은 자와 한 공간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현상일까? 그런데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우리와 상당히 달라서 바로 마을 옆이나 시내 한복판에서 정말로 예쁜 묘지를 본다. 사철 꽃이 피고 멋진 조각과 다양한 디자인의 비석들이 즐비한 이들 공동묘지는 개구쟁이들의 놀이터,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사랑받는다. 유럽여행 안내서에는 아름다운 조경을 자랑하는 공동묘지가 심심찮게

소개된다. 그리고 가장 사랑 받는 곳의 하나가 빠리의 빠르 라세즈(Père Lachaise)다. 이곳이 특히 유명한 것은 여기 잠들어 있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 때문이다. 여기서 유럽의 역사를 수놓았던 이들을 모두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중 오늘날까지 대중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이름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음악가로 쇼팽, 비제, 로씨니 등이 있고, 문인으로 오스카 와일드, 마르셀 프루스트, 거트루드 스타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화가로는 루이 다비드, 앵그르, 들라크루아, 조르주 쇠라 등이 있으며, 배우 사라 베르나르, 이브 몽땅. 그리고 맨발의 무용가 이사도라 던킨도 이곳에 잠들어 있다. 가수 에디트 피아프, 마리아 칼라스, 록 그룹 'the Doors'의 짐 모리슨이 있는 가 하면 철학자 메를로-뽀퍼, 리오타르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빠르 라세즈는 빠리 동쪽 외곽에 자리한 125만 평 부지의 묘지로서 시내 네 개의 시립묘지 중 가장 큰 규모인

데, 절대군주 루이14세가 늘어나는 매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하였다. 자신의 고해신부의 이름을 따서 붙였으니 '라세즈 신부님'쯤 될 것이다. 빠르 라세즈는 위치상의 약점 때문에 오랜 동안 시내 중심의 묘지에 비해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훗날 나폴레옹 재위기에 이르러 묘지 홍보의 일환으로 황후 조세핀이 묘책을 내었다.

불세출의 철학자 아벨라르(Pierre Abélard, 1079-1142)와 엘로이즈(Héloïse d'Argenteuil, 1100-1164)를 이곳으로 이장해 오는 것이었다. 천년 사랑의 주인공들을 얼굴 마담으로 모셔온다는 것부터가 매우 프랑스인다운 생각이었고, 이러한 감성주의 전략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아벨라르는 중세의 대표적 스콜라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였으며, 뛰어난 시인이자 작곡가이기도 했다. 체임버스 인물사전은 그를 '12세기의 가장 예리한 사상가이며, 가장 대담한 신학자'라고 평가한다. 부르따뉴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기사가 되

기보다는 학문의 길을 선택했다. 21세의 나이에 당대 최고의 학자이며 스승이기도 했던 윌리엄과의 보편논쟁에서 이기면서 유명해진다. 보편논쟁이란 보편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보편과 개별의 우위 여부를 놓고 벌어진 철학논쟁이다. 보편이란 개념은 삼위일체설과 신의 존재 여부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면서 수많은 종교적, 학문적, 정치적 논박을 불러일으켰던 중세 스콜라 철학의 핵심 주제이다. 카톨릭 교회라는 말도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다. 그는 성 주느비에브 언덕 위에 자신의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를 따라다니는 학생이 수천 명이 되었다니 그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오늘날 이 언덕 꼭대기에는 웅장한 빵 떼우이 서있고, 주변에는 소르본대학, 빠리고등사범학교, 빠리이공과대학, 앙리4세고등학교, 꾸리과학교등학교 등 전통의 명문학교들이 줄줄이 포진해있다. 유서 깊은 서점, 예쁜 카페, 맛집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이른 아침이면 동네 빵집에서 흘러나온 구

수한 냄새가 골목길을 싸고돈다. 이곳은 빠리의 중심이며 프랑스의 자존심이다. 먹물 깨나 든 교수, 학생들이 모두 라틴어로 말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68혁명 때까지는 라틴구(區)라고 불렀다. 지금은 5구라고 하지만 이곳은 아직도 프랑스 역사와 학문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당시 빠리 노트르담의 고위 성직자였던 필베르에게는 조카딸이 하나 있었는데 빼어난 미모에 총기와 통찰력을 갖춘 재원이었다.

17세의 나이에 라틴어, 희랍어, 히브리어의 고전에 능통했다고 한다. 엘로이즈는 필베르에게 있어 다시없는 자랑이자 보람이었고 그녀의 교육은 당연히 최고의 학자 아벨라르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의 아름다움과 반짝이는 재치에 불가항력으로 빠져들었고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지성과 박식에 흠뻑 반했다. 책 펴놓고 탄 짓만 한 것이었다. 스승과 제자라는 신분과 21살이라는 연령차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

엘로이즈가 임신하자 필베르의 처벌이 두려웠던 그들은 아벨라르의 고향 부르르파뉴로 도망쳐서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들을 낳는다. 그러나 필베르는 이들을 감언이설로 꺾어 빠리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는 아이를 빼앗고 엘로이즈를 아르장피이유의 수녀원에 감금하고, 아벨라르는 성기를 잘라버린다. 그들은 이 사건 이후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수녀원에 격리된 엘로이즈는 어린 아들조차 볼 수 없었고, 아벨라르는 치욕 속에서 동료 학자들의 냉대를 견뎌내야 했다. 엘로이즈는 후에 수녀원장이 되고 뛰어난 행정능력으로 수녀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이들은 서신으로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껏 남아있는 7통의 편지는 중세 서간문학의 압권으로 칭송받는다. 여기에는 치열한 신학적 담론과 함께 상대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벨라르는 말년을 끌뤼니의 수도원에서 보냈다. 그가 죽은 후 22년이 지나서야 엘

로이즈는 애인의 시신을 아르장피이유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2년을 더 살았다. 엘로이즈의 유언에 따라 아벨라르와 합장하기 위해서 무덤을 파헤쳤을 때, 아벨라르의 시신은 그녀를 맞아들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수많은 그림과 문학, 연극의 소재가 되었고, 현재 서울 시내 서점에도 이들의 서간과 해설을 곁들인 번역서들이 나와 있다. 사람들은 고딕양식의 대리석 캐노피를 만들고, 그 아래 석판에는 이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조각하여 불멸의 사랑을 기린다. 사랑을 얻고 싶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사랑을 잃은 자들이 모두 여기 와서 쪽지를 꽂아놓고 간다. (다음호 계속)

글 • 이정숙(수필가)

가족을 뺀 채치고 긴긴 날, 남처럼 살아온 아버지. 잠시 함께 산 날도 있지만 구박과 폭력으로 가슴 깊이 상처만을 남기고 떠난 아버지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빠 어디 가〉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와 유난히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던 성동일의 아픈 가족사를 들으며 그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해했었다.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끝내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의 아내가 아버지와 화해에 불을 지폈다. 아버지 살아 있을 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라도 할 수 있었으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동일의 아내는 시아버지가 운명하기 전, 아이들을 데리고 생면부지의 시아버지를 찾아가 손주들을 보여 주며 편히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남편이 버린 아버지이니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될 처지임에도 그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리고 편히 떠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시아버지의 제사도 자청해서 드린다고 한다. 며느리 된 도리라기보다 평생 외롭게 살다 간 시아버지에 대한 측은지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나를 ‘아들과 함께 사는 여자’ 정도로만 봐주면 좋겠다”던 어느 젊은 여인의 고백을 들으며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다. 다들

‘딸 같은 며느리’이길 간절히 바라는 데 중국에는 ‘아들과 함께 사는 여자’일 뿐이라니! 메마르고 삭막한 설정이긴 하지만 그만큼 마음을 비우거나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거리를 두었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애초에 이런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한다면 서운할 일도 서로 미워할 일도 생겨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기대하는 게 없으니 섭섭하거나 노여움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다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감사하고, 아니라도 크게 괘념치 않을 것 아닌가.

내게도 시부모님이 계신다. 그런데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 다 되도록 아직 한 번도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다. 미워도 참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뤄본 적도 없거나 서로 미워했던 적도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시부모님이 나를 미워했는데도 내 쪽에서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거울과 같아 그러기는 쉽지 않을 터이니 이처럼 단언하

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데는 유난히 말쑥이 없으시고 말 한 마디 강하게 하질 않는 시어머니의 성품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싫은 소리를 못하신다. 이런 분이시니 며느리가 다소 잘못하더라도 내색을 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시아버님은 강직함을 넘어 독선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가부장적이다. 군인 장교 출신인 아버님은 가족들도 몽땅 당신 부하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게 함부로 대하시고, 당신은 베풀지 않으면서도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께 잘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런 시아버님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갈등이 없었다. 이처럼 시부모와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한다.

호랑이 같은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 못지않게 유난스러운 성정의 시어머니를 섬기느라 눈 한 번 크게 뜨지 못했던 어머니가 가엾다. 평생 일구던이에 파묻혀 허리가 반으로 굽어버린 시어머니가 정말로 측은하다. 그

굽은 허리로 아직껏 눈두렁 발두렁을 기어 다니며 일을 해야 하는 시어머니가 참말로 안쓰럽다. 일생 속 끓이며 사느라 위가 쪼그라들어 고양이 밥을 드시는 시어머니, 기운이 없어 차를 탈 수도 없고, 압력밥솥 하나도 볼 끈들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눈물 나게 가엾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나를 그런 눈길로 바라보신다. 가난한 집에 시집 와 허약한 몸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안쓰럽고 가엾다 하신다. 더 많이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진심으로 미안타 하시고 가슴 아파 하신다. 둘이서 통화를 하면 전화기를 붙든 채 서로 말 한 마디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때도 많다. “어머니” 부르고 나면 그만 목이 메고 “아가, 엄마다” 하시고선 다음 말이 없으시다. 가족들에게 크게 잘한 것도 없으시면서 고래고래 고함이나 지르고 큰소리 뽕뽕 치셨던 시아버님은 그냥 묻어가신다. 한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일생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신 건 분명하지만 이젠 노쇠해지지 않았는가. 더러 서운한

게 있어도 일일이 따지거나 과거 일로 아버님의 심기를 어지럽혀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겠거니 하며 넘어간다. 그저 살아 계시는 동안, 몸도 마음도 평안하실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

‘나를 아들과 함께 사는 여자 정도로만 봐주면 좋겠다’던 어느 여인의 말처럼 엄밀히 말하면 며느리와 시부모는 남일 수 있다. 애당초 그런 식으로 관계를 설정하면 크게 섭섭하거나 원수니 악수니 하며 미워할 일도 없지 않을까. 그러다 며느리가 잘하면 그저 고마울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겠거니 하며 덮어둘 수 있을 것 같다. 바라는 게 많으면 그만큼 섭섭함도 크지 않던가. 무엇보다 시부모와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강력한 비책은 서로를 측은하게 여겨주는 마음이다. 신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측은지심이 아닐까 싶다.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해 못할 일도, 용서 못 할 일도 없다.

글 • 강인철

대학병원을 나서자 10월의 햇살이 눈이 시도록 따가웠다. 백양로를 지나 캠퍼스 본관 뒤쪽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걸었다. 약수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봉원사를 돌아 십여 분 오르다가 중간에서 방향을 바꾸면 능선은 애오개로 이어진다.

북아현동 마을을 만나기 전까지 사철 푸른 소나무가 있어 좋은데 계절 따라 꽃들이 만발할 때는 매일 봐도 싫지 않은 정겨운 길이다. 집에서도 가까운 안산(鞍山)은 그래서 오랫동안 꽤나 친숙하게 오르내린 길이었는데 그날은 반갑지도 편하지도 않고 걸음걸이마저 무거웠다.

지난봄부터 가끔씩 왼쪽 눈에 충혈이 있어 안과에 다녔다. 진료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결국은 수영금지

권고를 받았다. 별다른 질환은 아니지만 안압을 동반한 노인(老眼)이므로 이제는 눈을 혹사 시키지 말라는 권유였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벌써부터 눈을 편히 쉬려면...” 하고 중얼거렸으나 박사님은 들은 체 만 체, 당분간은 걷는 정도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도대체 걷는 것도 운동인가 싶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되물어 보았지만 대답은 마찬가지로 지였다.

가까운 안산을 찾기 시작한 것은 십수 년 전부터이다. 배낭여행을 준비하면서 아침저녁으로 틈만 나면 걷고 뛰고 달렸었다. 봉수대에 올라 ‘체력은 국력’이라고 여러 번 외쳤던 기억도 새롭다. 덕분에 실크로드도 무사

히 횡단할 수 있었고 히말라야 등반길에서는 동료들이 고산병(高山病)으로 주저앉을 때, 다행히도 그들을 부추기고 돌봐줄 수 있었던 기억은 내 자신이 신통할 만큼 감사한 일이었다.

아무리 '산이 거기 있어 산에 간다'고 하지만 언제부터가 정상정복(?)이라는 결과물이 없으면 산에 다녀온 축에도 못 드는 반면 등산 낙오자로 치부되는 경향까지 엮보였다. 성과가 곧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산에 올랐다 하면 오로지 정상 정복만을 위해 기를 쓰기 때문에 산새들과 더불어 주변을 살필 여유도 없고 야생화 한 포기 바위 돌 하나도 한가로이 바라볼 겨를이 없어져 버렸다.

나잇값일까. 가끔씩 그 동안 즐겨 해온 원정등반을 뒤돌아보게 됐다. '죽기 살기로(?)' 해발 6천 미터까지 올랐는데도 그 이상을 더 오르지 못해 안달이었다. 그게 바로 자화상이었음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이제 고해성사를 한 기분이 들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졌다. 산에는 인간

이 다 알 수 없는, 아니 인간이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만고의 오묘한 조화와 섭리가 무릇 기하인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언제나 물아일체(物我一體)를 되뇌며 강산풍월(江山風月)과 하나 된 마음으로 정답게 거닐면서 무언가 큰 깨우침을 얻는 도량으로 여겼다는 얘기가. 옛 문헌에서 보듯이 등산(登山)이라는 말이 필요할 경우 어르신들은 대신 유산(遊山)이라 표현해 놓고 있음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여간 크지 않다.

요즘은 그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뒷동산을 오르며 늦게나마 조금함을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이 갖는 '스승의 존재'를 조금씩 깨닫고 있다.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면 올랐던 높은 곳에서는 '오로지 올라야 한다'는 욕심에 가려 정작 산을 잘 알지 못했었는데, 낮은 뒷동산에서 천천히 걸으며 비로소 산이 제대로 보이고 있다. 마치 시력이 약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더 큰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오늘의 처지와 닮은꼴인 양 말이다.

약수터 오솔길을 걸으며 새삼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을 자주 하게 된 요즘, 주변의 산야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무심히 지나쳤던 그간의 미옥했던 어리석음을 탓하며 꽃들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한다. '인간은 한 번 가면 그만인데 너희들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렇게 예쁜 꽃을 또 피워낼 거지?' 한낱 들꽃이라도 그 신성한 존재의 의미는 우주의 조화에 있고 우리의 귀한 만남 또한 자연의 섭리에 있음을 짐작해 본다.

유럽여행길에서 세 번씩이나 들려 하루 종일을 하릴없이 걸어봤던 하이

텔 베르그 '철학자의 길'도 네카강을 사이에 두고 고성(古城)과 마주한 동산의 오솔길이었다. 높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산책로였지만, 야스퍼스, 헤겔, 괴테, 칸트 등 낯익은 철학자와 문인들이 한가로이 사유를 즐기며 삶의 내면을 관조하기 위해 걸었던 길이라 하여 세계의 여행자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인간은 걸음으로써 더 많이 사색할 수 있는 존재이며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멎는다고 했던가? 하이텔 베르그의 그때 그곳과 지금 이곳이 비록 시공(時空)은 다르지만, 나는 이 길을 그 길인 양 벗 삼으며 오래도록 걷고 싶다.

봉사자와 함께하는 무소유 기행 - 11월 일정 안내

2014년 '무소유 기행' 정기일정을 10월 4일(토) 경남 양산 통도사를 끝으로 마치고, 11월 1일(토)은 봉사자를 위한 특별일정으로 '전남 순천 송광사&거석문화유적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본모임과 인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자원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봉사자들과 떠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은 10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선착순 40명 접수받습니다.

- 참가비 : 정기 봉사자에 한해서 20,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 전 화 : 중앙사무국 02.741-4696

10 - (가)

지난 6월 아름다운 마무리 결연대상자는 장희순님(가명)님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올해 76세로 척추 수술을 세 번이나 받으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을 하십니다. 왼손 인대도 파열되어 손으로 물건을 잘 쥐지 못하십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변변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초 수급자 신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년 전 노인장기요양 3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집안 청소 등 일상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다보니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어려운 때,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들의 온정이 전해지고 인터넷 포털 모금 사이트 다음 '희망해'에서

네티즌 2,522명의 정성이 쌓여갔습니다. 덕분에 어르신께서는 다시 요양보호사 서비스와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 건강은 어떠신지 안부를 여쭙던 어느 날 수화기를 귀에 밀착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마저 힘이 빠져서 제대로 손가락을 들 수가 없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도 아파 누워 있기 힘들다. 좀 도와 달라!” 그래서 어르신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오른 손에 힘이 빠져서 혼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 낮에는 요양보호사가, 저녁에는 아들(이재성)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번째 척추수술을 시켜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대를 치료하는 것도 연세가 높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습

니다. 그 때 일을 마치고 들어온 49세의 넷째 아드님 이재성(가명)님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통풍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것은 이미 전해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재성님의 몸을 보니 요산 때문에 손가락, 무릎, 복숭아뼈 등 관절 마디마다 혹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찌르는 통증에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재성님은 작년에 월곡동에 있는 의원급 병원에서 무릎 혹 제거술 2회, 복숭아뼈 혹 제거술 1회 등 총 세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하고 나면 무릎이 붓고 퍼지지 않아 하루 이틀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나가도 일이 없어 허탕을 치는데, 몸이 이렇다보니 한 달 병원

비 30만원은 고사하고 월세30만원을 마련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손자 포함 세 식구 부식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재성님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보살피고 아들을 키워야 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병으로 인해 어머니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어르신보다는 아드님 이재성님의 병원비를 마련해서 경제활동에 빨리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병원이 아니라 통풍질환 명의로 손꼽히는 서울성모병원의 박성환 교수나 강동경희대병원의 양형인 교수에게 진료예약을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 맑고 향기롭게
- 캠페인 일정 : 10월 9일(목), 10월 26일(일) 길상사 경내
- 다음 희망해 모금 및 서명 방법 : 포털 사이트 '다음' - 희망해 - 맑고 향기롭게 검색하여 서명 또는 모금 참여

...

글 • 김상민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복지사)

내가 이00어르신을 처음 만난 건 저녁노을이 질 즈음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담한 단층짜리 단독주택,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15만원씩 하는 반 지하 집이었다. 지하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쾌쾌한 냄새가 났고 하수구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매우 심했다. 5년째 거주하면서 한 푼도 모은 돈으로 벽을 허물고 커다란 유리창문까지 달았는데도 악취와 곰팡이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았다. 벽의 곰팡이를 보니 도배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용 화장실은 불편한 외부에 있어 요강을 방에 들여놓고 생활하고 계셨으며, 싱크대도 없이 바닥에 가스레인지와 놓고 구부정한 허리로 간단히 음식을 해 드신다고 하셨다. 또한, 집 앞이 복개 공사한 개천이라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도로 물이 역류하여 올라온다고 하셨다. 작년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로 가구들이 많이 망가져 있었다.

이00어르신의 하나있는 아들은 허리 골절로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며느리가 식당일을 해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섯이나 되는 딸들은 셋이 이혼하고 거의 식당일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서 이렇다하게 도와줄 자리가 없는 현실이었다. 지병까지 워낙 많아 허리수술 2회, 심근경색 3회 시술, 팔에는 쇠를 박으셨고, 혈압에다 골다공증까지 너무 심하셔서 이번에도 살짝 주저앉았는데 허리와 꼬리뼈가 골절되어 버리신 것이었다. 심장까지 안 좋아 최소한의 마취만 하고 수술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을까? 그것도 한번이 아닌 두 번째이니 공포감은 몇 배에 달했을 것

이다. 나의 친정어머니께서도 두 번의 골절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떠시던지 그 모습이 나의 뇌리에 새겨져 있다.

어르신은 그 와중에도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아픈 통증쯤이야 하시며 기슴을 쓸어내리고 계셨다. 그때 마침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가에 일단은 손을 번쩍 들어 신청하겠다고 하였고, 되든 안 되든 신청해 보자고 어르신께 말씀 드렸더니 어르신은 내가 무슨 구세주 인양 간절히, 아주 절실하게 희망의 끈을 잡고 싶어 하셨다. 우리 어르신이 복이 많았던 건 사업 조건에 맞아 떨어져 신청이라도 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르신 없이 서류를 준비하느라 읍사무소를 몇 번씩 들락거리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르신의 기대를 저버리면 어찌나 하는 맘으로 나 또한 기도하듯 서류를 마무리 하였다.

하루, 이틀 내심 기다리며 선정자 발표일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는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 어르신도 그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연이어 말씀하셨다. 500만원이 다 되는 병원비를 이리 빌리고 저리 빌리고 했을 때는 정말 죽지 않는 당신 삶이 한스럽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손을 잡아준 ‘맑고 향기롭게’가 우리 어르신에겐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수술한 병원의 원무과장께서도 믿고 200만원은 미수로 처리해주셔서 퇴원할 수 있었다. 현재 어르신은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된다고 하여 둘째 딸 집에서 몸조리중이며, 일주일마다 통원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병원비가 평균 10만 원 이상씩 나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셨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래도 어르신의 자녀들이 엄

마를 잘 돌봐드리고 있어서 보기 좋았고, 나도 워낙 운동을 안 해서 걱정이 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와 닿았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행복했다. 나눔과 봉사라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작은 실천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 KOREA

글 • 김수연 (경희의료원 사회사업실)

러시아 재외동포인 첸00씨는 2013년 10월, 처음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 항상 들어왔던 한국은 '열심히 일하면 가족과 함께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남편과 함께 반찬가게를 해왔던 첸00씨는 점점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길이 없어지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 딸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당 설거지와 야채다듬기 등의 일용직뿐이었지만 함께 입국한 남편과 10여 년 동안 한국생활을 한 여동생 부부가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낯선 한국생활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첸00씨.

힘든 일도 마다않고 열심히 생활해오던 첸00씨는 올해 2월 초,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한 옆구리 통증에 소변에서도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에 떨

컻 겁이 나 몇 번을 참다가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찾았던 경희의료원에서 신장결석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신장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장 내에 결석이 워낙 컸던 터라 모든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2차 수술을 해야 했으나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수술날짜를 잡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외동포인 첸00씨에게 한국에서 의료비지원을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결석으로 심한 통증이 생기면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병원비 걱정 외래진료 한번 마음 편하게 받아보질 못했던 첸00씨에게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손뎀이 기다리던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지원 결정 소식은 첸00씨와 가족들은 물론, 함께 마음으로 애태웠던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전달된 소중한 지원금으로 첸00씨는 2차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퇴원하던 날,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아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어보이던 첸00씨는 서툰 한국어로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지원'으로 첸00씨에게 한국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찾아온 한국에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첸00씨에게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차로 대상자 10명을 선정하여 병원비를 지원하였으며, 2차로 결석대상자 중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요즘 저는 한 젊은 학자(박현모, 한국학 중앙연구원)가 쓴 '세종처럼'이라는 책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저자는 3년간의 실록 학교 강의 중에서 자료를 모아 오백여 페이지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 님, 훗날 한 백성이 입을 생각하며 이 좋은 책을 만들리라고 아셨나요. 한글보다 먼저 영어만 배우려는, 생각이 부족한 부모와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랍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입의 위대한 업적에 자랑스럽고 또한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신하들과 의논하며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내도록 토론했던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펼친 임금님. 여성들을 존중하고 지지하던 대왕님. 밤을 지새우며 애쓰셨기에 아마도 스트

레스로 음식을 많이 드셔서인지 살이 좀 찌셨다지요. 나라를 위하여 잘한 업적보다는 부끄러운 흔적만 남기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과 그의 아들과 딸들을 좀 꾸짖어 주십시오.

약 230여 년 전 한국민족의 정기가 흐르던 고구려. 수년 전부터 중국은 만주(지금의 만추리아)에서 발굴되는 발해와 고구려의 유적을 자기나라의 역사라고 바꾸는 동북공정에 분노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린 힘이 없어요. 국력이 깨어진 조선왕국처럼 부끄러운 당파싸움과 태만으로 다시 이웃 나라에 짓밟히고 빼앗기는 일은 오지 않겠지요.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항복하여 해방되었지만, 그동안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과 해외로 망명

한 민주투사들이 합세하여 세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특수한 계층만 잘 먹고 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권리가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향하여 모든 국민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김일성이 통치하던 공산주의자들이 남으로 내려와 일으킨 한국전쟁으로 지금도 아름다운 북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반쪽나라지만,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국말은 비슷하니 대화라도 자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한에도 도와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동포라며 굶지 말아 달라고 북한에 많은 돈을 도와주었더니 무시무시한 핵이나 만들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또 자유의 남쪽 나라 부자들은 흥청망청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일부의 사람들은 이상한 국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글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숨은 애국자들이

이 더 많습니다.

외국에 사는 저도 날마다 한글을 말하고 씩니다. 우리 한글이 컴퓨터랑 손전화기 속에서 세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의 연속극을 즐겨 보면서 한국말로 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몇 해 전 한글 창제의 과정을 그린 연속극 '뿌리 깊은 나무'를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또 궁중음식 문화를 보여준 '대장금' 사극은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랍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꿈의 나라가 한국이래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후, 곳곳이 박물관이고 아름다운 국토로 개발되었지요. 간혹 자연을 훼손하고 국적을 알 수 없는 괴상한 건축물들이 환경을 우스꽝스럽게 하고 있지만요.

걱정이 있다면 변화가에서 보는 가계나 식당의 간판 이름들이 뜻을 생각 안 하고 너무 멋만 부리며 마구 지어냅니다. 직장의 면접시험도 영어 회화가 필수이고 한글보다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방송국도 있습니다. 어

느 대학의 국어학과 강의실은 외국학생 뿐이라네요. 1980년대 정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자고 외치더니 아이들이 자기 나라말도 모르며 자라고 있답니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임금이라는 특정한 분이 독창적으로 문자를 만들고 공용문자로 사용하게 한 일과 문자를 만든 원리와 사용에 대한 설명을 정연하게 설명해 놓은 훈민정음 해설문을 보고 놀라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중조 고조할아버지가 죽을 고비를 어떻게 넘기고 살아온 조상의 역사도 모르면서, 검정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다고 서양인이 됩니까? 부모님이 낳아준 얼굴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국인으로 정체성 있는 교육이 이섭답니다. 국제결혼하여 살더라도 최소한 자기의 핏줄에 대한 역사적 뿌리는 알아야지요. 지난날 나라의 아픔을 경험하며 지켰던 어른들이 거의 떠나버린 지금, 이 나라는 누가 올바른 정신으로 이

끌어 나가야 할까요.

얼마 전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시와 함께 열렸던 세계문화엑스포의 패션쇼 사진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양 어깨를 드러낸 한복 치마만 입고 행진하는 모습. 여러 개의 속옷을 입은 고전미 흐르는 한복의 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예술품이었죠. 또 한국 음식은 어떤가요. 퓨전이라는 음식은 때론 맛있지만, 그래도 한국 음식의 고유한 뿌리는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을 인간답게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학부형과 버릇 없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샌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른답지 못한 부모 때문인지 가정교육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우리 부모님은 부산에서 흔히 보이는 대마도(쓰시마)가 원래 우리 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강한 나라에는 아첨하고 약한 나라한테는 큰소리치는 일본의 두 얼굴을 싫어했습니다. 일본은 해방 후 영토 반환 서류에서 빠져버린 동해의 작은 돌맹이 섬,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우리 영해를 빼앗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니 정말 속터져 죽겠습니다. 저는 인류에게 엄청난 손해를 부르는 전쟁이 싫거든요.

아! 세종대왕 어르신,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예쁜 우리 글자. 1443년에 제정하고 반포하실 때까지 궁궐에서 혼자 호호호식하지 않고, 글을 모르는 만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으로 만드셨습니까. 다행히도 수년 동안 무지한 정치인들이 없애버린 한글날을 지난해 다시 찾았답니다. 저도 세종대왕님께 큰 보답을 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약속합니다. 학창시절 한글날이면 우리는 큰 목소리로 '한글날 노래'를 교

정에 서서 우렁차게 부르며 애국심을 길렀습니다. 비록 국토는 작아도 정신력과 힘 있는 나라가 되어주기를 기원하면서요.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긴 역사 오랜 전통 지녀온 겨레
거룩한 세종대왕 한글 펴시니
새 세상 밝혀주는 해가 돋았네
한글은 우리 자랑 문화의 터전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최현배 작사/ 박태현 곡)

반갑게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멕시코 젊은이들도 K-POP(한국 인기노래)에 푹 빠져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아이 러브 코리아, 코리아라고!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답니다.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이용해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오시면 각 사업 활동영역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소식과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님과 지역 사무국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모임의 활동 이야기와 좋은 글을 생활 속에서 회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과 나누기 위해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clean94.or.kr)

가 ?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정부가 교육과정을 또 바꾼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면 겁부터 낸다.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며 왜 바꾸겠다는 것일까? 또 교육과정이 바뀌면 우리 아이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교육정책, 교육과정뿐만 아니다. 입시정책도, 사교육정책, 대학구조조정정책, 교원정책 등등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튼튼한 몸을 가꾸는데 필요한 것을 깨닫고 체화하는 과정이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만 가능하다. 학교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 즉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계획안이 곧 교육과정이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는 교육과정에 '어떤 인간을 양성할 것인가'라는 목표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수요자인 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라기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을 길러왔다. 박정희정권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보면 국가가 왜 교육을 주도하는 지 알 수 있다.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 지금은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 정부와 학교는 공급자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취학연령이 되면 학교에 보내 학교가 짜놓은 교육프로그램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받는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된 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그냥 믿고 맡겨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필요에 의해 길러낸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 과연 모든 학생들이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분신인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학교, 그 학교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아이들의 장래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을까? '학교가 알아서 해 줄 것이다', '학교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 라는 기대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세상에 둘

도 없는 귀한 내 아이가 어떤 내용을 배우고 그런 내용이 우리아이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그런 공부를 하면 앞으로 어른이 된 후 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모른 채한다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내 소중한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알아보자. 정부가 2017년부터 '창의·융합인재양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 안의 중요한 내용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대입 수능고사를 치르는 2021학년 수능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등 6개 영역이 '공통 과목'으로 입시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이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 공부하고 있다. 학생이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소질과 특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게 오늘날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어떤 부모가 반대할까? 정부가 바꾸겠다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보면 형식이나 취지에는 잘못 된 게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다.

문과나 이과라는 게 뭔가? 문과란 사회의 법칙성을 찾는 학문이요 이과란 자연의 법칙성을 찾는 학문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이란 화학이나 물리학 계통으로 즉 이과를 선택한 학생에게는 ‘사회의 법칙성은 몰라도 된다’는 식이었다. 마찬가지로 정치가나 판검사와 같이 문과계통을 선택할 학생들에게는 ‘자연의 법칙성은 몰라도 된다’는 식이었다. 마치 의사가 될 사람에게 인체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덮어두고 ‘안과의사는 눈에 필요한 지식만, 피부과의사는 피부에 관한 지식만 가르치면 된다’는 식이었다.

원론적으로 문과와 이과의 통합이란 맞는 말이고 그렇게 가야한다. 그런데 각론이 문제다. 현실은 덮어두고 ‘교육 따로, 현실 따로’라는 교육과정을 만들면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문과든 이과든, 일반계고든 특목고든 학교교육의 목적은 단 하나다. ‘일류대학 입학’ 그래서 입시철이 되면 학교 교문에 ‘축합격 000 서울대 합격’과 같은 플래카드가 내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문·이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자신의 소질이나 장래희망 직업과는 관계없이 수학을 잘하면 이과를, 국어나 영어를 잘하면 문과를 선택했다. 그런데 정부가 현 초6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 개정하겠다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는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

에게 사회와 과학과목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겠지만 학교현장에는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걱정하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문제는 수능이다. 인간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수능능력고사를 두고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사회와 과학 과목을 모두 열심히 배우겠다고 할까? 기존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에도 문서상으로는 문·이과가 따로 없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을 강조하면서 고1까지 공통교육과정이고 고2, 3학년은 선택교육과정이었다. 수능과목도 학생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고교과목 이수방식이 달라졌다. 그러나 수능이라는 고시 앞에는 교육과정 따로 학교교육 따로다. 수능을 바꾸지 않고서는 교육과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

학적 기초소양을 고르게 길러 주자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총론은 옳지만 각론에서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정부의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불신과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를 두고서는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검증도 되지 않은 자유학기제며 중학교 스포츠클럽 교육과정 전면 도입과 같은 내용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생똥맞기까지 하다.

결국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와 같은 정부의 속보이는 의도가 담긴 교육과정을 현장교사의 80%가 교육과정이 개정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며 76.9% 교사가 교육과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부터 문·이과 모두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를 필수로 응시하도록 하면 학교는 어떻게 달라질까? 보나마나 학습 부담이 현재보다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능과목이 되는 것 자체

만으로도 부담이 늘기 때문에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입시전형 개수를 3,000개에서 1,200개로 줄인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절름발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통합사회에 적응할 건강한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교육부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로 문과와 이과의 덕목을 고루 갖춘 균형 있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면저 대입제도와 수능제도부터 바꿔라. 사교육시장이 먹잇감이 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 · >

글 • 최정희(불교 언론인)

월간 '맑고 향기롭게'에 뜻을 함께해줄 작가를 모십니다.

사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은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뜻으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 발행하고 있습니다. 1994년 5월 첫 창간하여 법정 스님의 글을 비롯하여 삶의 지혜를 주는 글, 지역모임의 활동 안내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행사 및 법회 등의 소식을 담아 화원 및 신도를 비롯하여 길상사 방문객, 군법당, 병원, 복지단체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 공감하여 마음을 함께 해 줄 여러 작가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모집 부문

- 창작 문학시, 수필, 에세이, 칼럼, 평론, 카툰, 사진, 그림
- 미용양속을 해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
- 기획 연재물(최소 3개월)

• 모집 안내

- 화원 투고, 작가의 문학작품은 수시로 접수합니다. 법인사무국 전자우편(clean94@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시기 때는 본인의 소개(이름, 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작가의 의향에 따라 연재물은 원고료를 지급하며, 화원이나 독자의 글은 채택될 시 귀한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맞춤법·띄어쓰기 주의, 컴퓨터 용어, 과한 한자 사용, 종교 비판 및 폄하는 피해 주시고,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백여 년 전 어느 봄날. 그림처럼 아름다운 남해 바다에 돛단배 한 척이 육지를 향해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마치 요람에 든 아기 같구려!」

외로운 섬생활을 청산하고 육지로 이사하는 노부부는 더없이 흡족했다. 그들이 이처럼 즐거워하는 것은 비단 배 안의 아늑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식이 없어 적적하던 이 부부에게 뒤늦게나마 경사가 생긴 것이다.

「뱃속의 아기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 그래요!」

미처 아기 생각을 못했다는 듯 노인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웃었다.

육지에 오르면 집을 마련하고 아기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이룰 꿈에 부풀어 얼마쯤 왔을 때다.

「아니 배가 왜 꿈쩍을 안할까!」

노인은 재빨리 노를 썰며 저었다. 그러나 배는 조금도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뿐인가. 칠량대던 물결도 굳은 듯했다.

「여보, 제 뱃속의 아기도 꿈쩍을 안해요!」

「에엑! 아기도 놀지를 않는다구?」

노인의 안색은 파랗게 질렸다. 모처럼 희망을 안겨준 태아마저 움직이지 않으니 그저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으앙!」하는 아기의 울음 소리가 죽음처럼 고요한 바다의 침묵을 깬다. 예기치 못했던 순간적인

해산이었다.

「아들이다!」

정신을 차린 듯 노인은 엉겁결에 소리쳤다. 학수고대하던 아들을 얻고도 공포와 불안에 잠긴 노부부는 땀줄을 끊어 바다에 던졌다. 그 순간 또다시 이변이 생겼다.

땀줄이 바닷물에 닿자마자 배는 언제 멈췄느냐는 듯 항해를 계속했고 바닷물도 정겹게 출렁거렸다.

아기의 건강한 울음소리는 경쾌하게 바다에 울려 퍼졌다.

신기하게 태어난 그 아기는 참으로 비범하게 자랐다.

노인은 바다마저 숨죽이게 하고 태어난 아들 이름을 해율이라 했다.

커갈수록 재주가 뛰어나며, 책 읽기를 즐기던 해율은 열 살 되던 해 입산의 뜻을 밝혔다.

「뭘, 입산출가를 하겠다구?」

「네, 부모님 슬하를 떠나 도를 닦을까 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니, 네 나이 겨우 열 살인데 도를 닦겠다니 알 수 없는 일이고구나.」

해율의 부모는 펄쩍 뛰었다. 그러

나 자식이 아님을 깨달은 노인은 할 말을 달래 해율의 출가를 허락했다.

해율은 자신의 영감이 계시하는 대로 발길을 옮겼다. 도착한 곳은 지금의 통영군 광도면 안정리 상촌부락 뒤 백방산 음봉암. 그 암자엔 고매한 도승이 한 분 있었다. 스승을 만났으나 나름대로의 신념을 지닌 해율은 도승의 가르침에 따르려 하질 않았다.

「스님께서 절 어디라고 하심은 마치 제 부모님께서 출가를 걱정하시던 자애로운 정과 같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스님, 제가 암자 밖 저 큰 바위에서 10년간 도를 닦게 해주십시오.」

꾸지람도 해보고 달래도 보았으나 해율의 뜻은 돌처럼 굳었다. 기어코 해율은 거대한 바위에 도의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

계절이 바뀌어 살을 에는듯한 겨울 한파가 몰려왔다.

「해율아, 바람이 차다. 네 힘으론 이 추위를 이기지 못할 테니 어서 암자로 가자.」

「아닙니다. 꼭 이겨내겠습니다.」

2년, 3년 해가 거듭됨에 따라 해율은 청년으로 변해갔다.

「벌써 7년째다. 해율아, 이러다간 입도하지도 못한 채 쓰러지겠다.」

도승은 안타까워 전딜 수가 없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10년이 되던 날 도승은 더 이상 볼 수만 없어 잣죽을 끓여 가지고 해율에게 갔다. 「그 자리에 앉은 지 벌써 10년. 네 힘이 어지간한 것을 이제 알겠으니 이 잣죽이나 먹고 깨달음을 기다려라.」

해율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

「아니, 이 애가!」

도승은 해율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노스님이 섬뜩 놀라는 순간 갑자기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면서 해율이 앉은 거대한 바위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 그제야 잠자코 있었던 해율이 몸을 털고 일어났다.

「스님, 너무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허- 그래?」

노스님은 해율이 신통했다.

그 후 종렬이란 젊은이가 이 바위에서 10년 정진 후 깨달음을 얻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스님과 해율, 그리고 종렬 등 세 명의 도사가 깨달음을 얻은 이 바위를 삼도사 바위라 불렀다.

글 • 김선애(번역가)

지난 가을, 여름에 엄마가 된 친구의 집에 갔을 때였다. 이제 5개월 된 친구의 아이는 아기 부처님 같았다. 내가 아기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자 아기는 방긋방긋 웃었다. 아기가 옷자 가슴 속이 환해졌다. 그렇게 나는 아기의 귀여운 모습만 보고 왔지만, 친구는 아이를 키우느라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거의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다. 아이를 보다 보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날도 있다고 했다. 내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같이 농구를 하며 놀았고, 많은 시간 교정을 함께 거닐며 말과 침묵을 나눴다. 열일곱 살 그 소녀는 이제 어머니가 되었다. 친구는 몸과 마음 모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을까.

아이를 키우는 일을 거의 전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에서,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낮 내내 혼자 아기를 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을 것이다.

온몸, 온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세상의 모든 분들을 나는 존경한다. 그분은 어머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지만 따스한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기 때 어머니나 보호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 살아간다. 사랑으로 보살펴준 누군가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 일을 이룬 듯 우쭐해하지만, 그동안 말없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달라이 라마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지난 생에서 언젠가 한번은 나를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라는 말을 쓴 데는 어쩌면 누구도 남이 아니라 는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몇 년 전 여름, 석굴암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때였다. 석굴암 아래에는 큰 종이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금함에 돈을 내면 종을 칠 수 있었다. 나는 종앞에 서서 종 칠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때 조그만 손이 슬며시 내 손을 잡았다. 내려다 보니 아기가 내 옆에 서서 앞 사람이 종 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를 자기 엄마로 잘못 알고 손을 잡은 것이다.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손. 나는 그 손을 잡은 채 아기와 나란히 서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함께 들었다. 그 모습을 본 아기 엄마가 다가와 아

기에게 말했다. "왜 누나 손잡고 있어? 무서웠어?" 아기는 그제야 내 얼굴을 올려다보고 엄마가 아닌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살짝 손을 놓더니 껌연쩍은 듯 배시시 웃었다. 나도 아기가 귀여워 웃음 지었다. 손을 잡고 있었을 때 아기에게 나는 엄마였다. 나도 그 순간은 엄마 마음이었다. 또 누가 알리, 내 전생에 이 아이의 엄마였을지.

때로 나는 전생에 아이가 많은 엄마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길을 걷다 어린아이들을 볼 때면 잘 자라기를 저절로 기원하게 된다. 어느 날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맞은편에서 자그만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걸어오며 나에게 말없이 담담하게 한 손을 흔들었다. 나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기는 곧 지나쳐갔지만 내 입가에는 오래도록 미소가 머물렀다. 이 한 번뿐인, 어쩌면 재회일지도 모를 만남. 우리는 만났고, 잠시지만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그들의 아이들인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봉사 활동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 450여 가구에 27지 밀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봉사자끼리 서로 웃어가며 함께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실 분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 노인요양원(자인요양원, 모희원) 봉사 활동

자인요양원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놀이 활동을 합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함께 출발) 모희원은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함께 출발) 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상담해 주셔야 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봉사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노인복지 이용시설로서 매일 2,0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점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고, 월요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센터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또한 배식 관련

활동상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하며 미소지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해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자정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시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

습니다.

10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이 발송 우편작업/2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31일(금)/오후 7시~9시/설법전/기수 백영규,서정아 초청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목, 금요일(2,10,16,17,23,24,30,31일)/김처(10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6,13,20,27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2,19일)/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5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둘째 일요일(12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발벗 봉사자 정기모임/셋째 화요일(28일)/

오후 1시 30분/셋달타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3일(토), 26일(일)/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1,8,15,22,29일(수)오전 10시(삼풍, 로션, 에센스)/세계일화실, 비누는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7,14,21,28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26일(일)/길상사 경내
- 월곡청소년 센터 옥상텃밭 가꾸기 활동/1,15일(수)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4일(토)/송광사 불암일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7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맏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맏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 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케어,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맏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맏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09:30~13:3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09:30~12:00
 - 매월 셋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상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목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주 수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말벗봉사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1,2,3주 토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지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독서모임** : 법정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범능 스님 노래,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8월부터 진행 예정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수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맏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중양절 안내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기재일을 모르는 조상 영가 및 자손 없는 영가의 재사를 봉행합니다.

- 일시 : 10월 2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다라니기도

- 일시 : 10월 4일(토) 오후 7시~9시
- 장소 : 극락전

천일기도 입재

- 일시 : 10월 11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지장전 천일기도 입재일이 1일에서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계관음기도

- 일자 : 8월 11일(월)~12월 5일(금)
- 시간 :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10월 11일(토) 오후 9시~10월 12일(일) 새벽 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0월 11일(토) 오후 8시 30분~10월 12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 보호대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 [217기] 10월 18일(토)~19일(일)
[218기] 10월 25일(토)~26일(일)
- 참가비 : 5만원

총신도회 성지순례

- 일자 : 10월 25일(토)
- 장소 : 동학사, 마곡사, 갑사
- 동참금 : 4만원

2015년도 대입수능 100일 기도

- 일자 : 8월 6일(수)~11월 13일(목)
- 시간 : 오후 2시~4시
- 장소 : 극락전

동절기 예불시간 변경 안내

10월부터 3월말까지 저녁예불이 기존 오후 7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오후 6시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셔틀버스 운행 시간 추가

10월 1일부터 길상사 셔틀버스 오후 운행 시간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신도님과 봉사자가 이용 하는 시간을 배려하여 <오후 3시 - 길상사 출발, 오후 3시 10분 - 동원마트 앞 출발>이 추가되며 나머지 운행시간은 동일합니다.

1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11월 1일	오후 7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11월 8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11월 8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11월 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1월 1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수능입시기도 천도재	11월 12일	오전 11시	극락전
관음재일	11월 1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11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공덕주 길상화보살 기일	11월 2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적묵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집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맑고 향기로운 「자선 음악회」 시월의 마지막 밤 - 세월을 노래하다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

가진 것이 적든 많은 덕을 닦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법정스님 -

이 가을!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음을 느낍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내 가족, 친구의 안부뿐 아니라 정작 나 자신의 안부도 모른 채 세월에 묻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시월의 마지막 밤! 여럿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난 시절 즐겨 불렀던 가수의 노래와 더불어 잃어버린 인간의 온정(溫情)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조금만 여유롭게 하고, 다독여가며,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조금씩 나누고, 위로하며, 세월의 깊은 의미를 새기며 살았으면 합니다.

- 일시: **10월 31일(금) 저녁 7시**
- 장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 초청 가수: 백영규(슬픈 계절에 만나요, 잊지는 말아야지), 서정애(비비각시)
- ※ 당일 자선모금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금액에 상관없이 '산에는 꽃이 피네 오디오북'을 선물로 드리며, 수익금은 결식이웃 연말 김장 나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